

2019년 VRound(VR 콘텐츠 공모대전) 프로토타입 제작 심사 종합심사평

VRound(VR 콘텐츠 공모대전)는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토타입 제작 심사 대상 41개 과제를 심사하였습니다.

총 7인의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프로토타입 제작 심사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창작자(팀) 역량, 기획우수성, 기대성과, 가상현실적합성을 심사하여 2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창작 집단이 제작주체로 참여한 점은 VR 콘텐츠 저변확대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차별화 및 독창성이 있는 다양한 소재를 프로토타입 제작 계획안에서 다룬 점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의 VR 전문성 부족은 개선 필요합니다. 일부 작품들이 무겁고 어두운 소재를 비중 있게 다룬 점도 VR 콘텐츠 확장성을 위해 다소 보완 필요합니다. 최종 선정된 VR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제작에 있어서 지속적인 일정 및 퀄리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